

주소 : <http://www.segye.com/Articles/NEWS/CULTURE/Article.asp?aid=20081110003174&subctg1=&subctg2=>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세계일보>

탈락大 "점수조작·밀실심사 의혹… 법적대응 할터"
학진측 "심사 방법·절차상 문제점 발견되지 않아"



◇HK 지원사업에 이의를 제기한 외대(사진 왼쪽)와 선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학진.

인문학 진흥을 위해 정부가 2년째 야심 차게 추진 중인 인문한국(HK) 지원사업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선정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인문학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HK 지원사업은 10년간 50개 연구소(인문연구 분야 30개, 해외지역연구 분야 20개)를 지원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학술진흥재단은 지난달 28일 2차연도 신규 지원 대상으로 8개 대학 부설연구소 10곳을 예비 선정했다. 이번 예비선정은 53개 대학의 102개 연구소(인문 분야 73개, 해외지역연구 분야 29개)의 신청을 받아 인문과 해외지역연구 분야에서 각기 5개 연구소를 선정했다. 이들 연구소는 연간 5억원에서 8억원을 최장 10년 동안 지원받게 된다.

학진은 “전공·면담·종합심사를 거쳤다”며 “연구 의제와 기반 심사를 분리해 절차상의 공정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비선정 이후 논란에 휩싸였다. 심사 원칙이 발표와는 달리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특정 대학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는 주장이 불거졌다.

2년간 1개 연구소도 선정되지 못한 한국외국어대는 5일 “선정된 연구소 관련자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경우도 있고, 심사를 완료한 이후에도 총점수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이해할 조치가 없으면 법적 소송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외대는 이어 “이의제기 기간이 아닌 때에 비공식 로비를 통해 선정 대상이 된 서울대 연구소도 있으며, 김영한 심사총괄위원장이 재직 중인 서강대 연구소는 연구기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선정되는 불공정성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이런 인식과 함께 “예비선정 결과를 통해 제기된 심사 절차의 문제점과 결과 조작 가능성, 밀실심사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법원에 효력정지 요구 가처분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의 일부 대학도 “인문학 지원의 본래 취지와 달리 서울 편중이 심화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학진은 사전 정보 유출과 로비 의혹에 대해서 “공식 이의제기 기간 이전에 서울대 연구소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절차에 문제가 있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학진의 권길화 인문학지원팀장은 “교수들이 중심이 되는 심사 내용 자체는 학진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심사 형식과 절차에는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팀장은 그러나 “한국외대 등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곧 답변을 줄 것이며, 학진 차원에서도 검토해 발표할 것”이라며 “애초 7일쯤 최종 선정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이의 제기로 12일 정도로 미뤘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 지원 대상은 인문연구에서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연세대 국학연구원,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한국해양대 국제해양문제연구소, 한양대 비교역사문화연구소가 선정됐다. 해외지역연구에서는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서강대 동아연구소,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선정됐다.

지난해까지 합해 선정된 연구소를 보면 서울대 4개(인문 2개, 해외지역연구 2개), 고려대 3개(인문 1개, 해외지역연구 2개)가 선정됐다. 이 외에 2개씩 선정된 부산대(인문 2개), 부산외대(해외지역연구 2개), 연세대·한양대(인문 1개, 해외지역연구 1개) 등이 있다. 첫해인 지난해에는 19개 연구소(인문연구 분야 16개, 해외지역연구 분야 3개)가 선정돼 지원받고 있다.

박종현 기자

기사입력 2008.11.10 (월) 17:44, 최종수정 2008.11.11 (화) 09:31

세계닷컴 뉴스 및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경우 저작권법과 관련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EGYE.com COPYRIGHT © SEGYE.com All rights reserved.